

일주문



경남도청에 2천만원 기탁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7월 20일 경상남도청을 방문, 공창서 행정부지사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기탁했다.



선남선녀 인연맺기 프로그램 진행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칠월칠석을 맞아 8월 18일 보우당에서 '선남선녀의 아름다운 인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547-7831



제14회 백련시사 봉행
30여 년 간 백련보급에 앞장서 온 혜민 스님이 7월 21일 예산 청화사에서 제14회 백련시사를 봉행했다. 시사는 석전시동인회의 시낭송 등으로 진행했다.



前 미 법무국 변호사 초청 강연회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8일 일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종연 前 미 법무국 선임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캄보디아 방문 상호교류 논의
육천 대사사 주지 혜철 스님은 7월 23-25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정부 당국자와 불교 담당자를 면담하고, 상호교류와 국제결혼에 대해 논의했다.



독거노인 생신잔치 행사 개최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7월 24일 SK네트웍스 사랑보람봉사단의 후원으로 지역 독거 어르신 50여명을 초청해 생신잔치를 열었다.



연등국제선원 일고 스님 초청법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강명성 회장은 8월 6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 서 강화 연등국제선원 일고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722-2206

혈액암 투병 방경우씨 8월의 환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8월의 환우로 방경우(42· 사진)씨를 선정했다.

올해 초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던 방씨에게 날아든 것은 입사 소식이 아닌 말초성 T세포 림프종 혈액암 진단. 이후 4개월 동안 5번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은 그에게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연세 많은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두 아이가 있다. 부인 역시 골반염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

다행히 8월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계획이라 한줄기 희망을 잡았지만, 3000만원이나 드는 수술비용은 또 다시 그의 몫이다. 다섯 식구의 든든한 가정으로 다시 설 바를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때다.(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여수형 기자

“티베트 불교 한국에 알리고 싶어”

한국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



한국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주지로 취임한 소남 갈첸(Sonam Gyaltzen· 사진) 스님이 8월 15-18일 '티베트불교문화캠프'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 온 소남 스님은 “티베트 문화는 그 자체가 불교”라며 “티베트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기 위해 문화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캠프에서는 티베트불교 일상수행법, 오체투지, 참회 수행, 기도문 등 전통 수행법식을 재현해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티베트 경전인 <람림> 강의를 마련된다. 더불어 ‘검’ ‘문’ ‘리’를 뜻하는 티베트 영화 감상, 티베트 주시인 잠빠와 짜이 시시, 타르초 만탈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티베트센터에서는 티베트 현지에서 불교를 공부하듯 깊이 있게 티베트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도 번역해 볼 예정입니다.”

1986년 달라이라마에게 사미계를 받은 소남 스님은 인명학, 고사론, 중론, 율장, 반

야 등 5대경을 공부하고 6년 뒤 시험을 거쳐 ‘계시하람빠(불교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규토 사원에서 밀교를 수학하고 드래중 라피 사원에서 10년간 호법 소임을 맡았으며 2004년 밀교 시험을 통과하여 ‘낙람빠’ 학위를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4년 동안 매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다량살라에서 여셨습니다. 첫 법문의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입보리행론>을 설파하시고, 4년간 꾸준히 전하셨습니다. 불자들이 보리심과 보살행의 실천을 강조하는 <입보리행론>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남 스님은 앞으로 티베트 명상 모임을 이끌어 수행법회를 열고 목요일에는 티베트어 강좌, 금요일에는 람림 법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음력 보름과 30일에는 티베트 전통 방식에 따라 대승포살계수계식을 봉행하며 티베트 불교를 알리나갈 계획이다.(051)243-2468

하성미 기자

“무용 전공자 선발 집중교육 할 것”

조계사 무용단 총감독 임이조씨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임이조 한국전통춤연구회 이사장(사진)이 서울 조계사 무용단 총감독으로 부임했다. 임 총감독은 우봉 이매방 선생에게 승무 춤을 사사해 대중화에 힘썼을 뿐 아니라 보살춤 등을 창작해 불교 이미지를 춤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임 총감독은 ‘개벽의 목소리’ ‘똥’ ‘한이 깊으니 흥도 깊더라’ 등의 작품과 ‘춘향전’ 방북공연 연출 및 안무를 통해 한국전통무용의 명맥을 잇고 있는 춤꾼이며 안무가로, 우리 무용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무용단, 청년 무용단, 어머니 무용단, 일반 무용단 등 4개 계층으로 무용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그는 “무용 전공

“불교신도·스님 위한 통일교육 적극 후원”

민주평통 종교위원장 원택스님



“종교계의 통일관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종교인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입니다.”

7월 19일 출범한 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원택 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 사진)은 “불교계에서 종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그간 불교계에서 펼쳐온 평화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분발사 주지연수나 신도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 종교분과위원회에는 불교계에서 현성(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회장) 총평(전태종 총무원 위원장) 효립(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법안(금산사 주지)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여수형 기자

“불교 심성 프로그램 만들 것”

역삼청소년수련관 진정순 관장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전일 관장의 인수인계 거부로 진정을 겪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이 7월 18일 재개관하고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3월 5일 인입관장에 임명됐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던 진정순 관장

(63·前 당곡초교 교장· 사진)은 “문화재 예술품과 청소년 명상 및 요가교실, 선무도 등 전통문화활동, 선이 결합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순 관장은 한국스카우트중앙연맹 최초의 여성 이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으며, 올해 6월 1일 창립한 교육경영자복지회 푸루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신입관장 취임식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0일 복지관 강당에서 신입관장 보인 스님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0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양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용문사가 운영지원 사할이다. 보인 스님은 “양평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사생대회



서울시립중장노인전문요양원(원장 장용철)은 7월 22일 요양원 및 북부노인병원 앞마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그림으로 열어가다’를 개최했다. 사생대회에서는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20여 명의 어르신과 일반인 50여 명이 함께 어울려 그림 솜씨를 겨뤘다.

순천 송선사, 재소자 독경·찬불가 대회



순천 송선사(주지 정환)는 7월 19일 순천교도소 강당에서 제12회 순천교도소 재소자 독경·찬불가 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정환 스님은 “폐쇄된 공간이지만 심성과 화음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생활행동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고승초청 법회 봉행



전주 화엄불교대학(원감 덕림)은 7월 22일 조계종 원로의원인 불심 도선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법사로 고승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장수군 공무원복지회 한국회 회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도선 스님은 “11여년만의 수행으로 수처자득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圓)할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을,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할관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할관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경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7년 8월 1일부터 □ 입학일: 9월 3일(월)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약간명
- 수업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시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대혜스님